

“꿈·현실 오가며 쓴 굿판 같은 작품”

송은일 작가 10권 대하소설 '반야' 출간

1995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무녀 예지력 둘러싼 권력다툼 소재
“바깥 교류 차단한 채 10년간 몰두”



“출판사에서 보내는 책을 받았을 때 감개무량했어요. 한편으로 실감이 나지 않고 멍한 기분도 들었구요.”

1995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송은일(53·사진) 작가에게 올해는 잊을 수 없는 한 해일 것 같다. 10여 년 고투 끝에 1만5000매에 달하는 대하소설 '반야'(10권·문이당)를 출간한 것이다.

호흡이 긴 대하소설을 쓴 여성 작가로는 박경리의 '토지'와 최명희 작가의 '혼불'이 있다. 첫 장에서 마지막 1만 5000여장에 이를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 대하소설이다. 대하(大河)라는 말처럼 다수의 이야기 줄기가 한데 얽여 유장하게 흘러가는 서사는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닌다.

어려운 숙제를 끝낸 것처럼 송 작가의 목소리는 밝고 기대감이 넘쳤다. 글에 대한 압박에서 해방됐다는 출가분함과 출간된 책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뒤섞인 때문인 듯 했다.

송 작가는 “2007년 처음 2권짜리 '반야'를 쓰기 2년 전부터 머릿속에 대하소설 구상이 있었다”며 “젊은 시절 친구들과 재미로 점이나 한 번 보러 가지며 점집에 들 때 도 막연히 언젠가 무녀(巫女)를 모티브로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밝혔다.

소설 '반야'는 무녀 반야가 주인공이다. 신기(神氣)를



지니고 태어난 반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고뇌와 갈등, 권력을 잡기 위해 이전투구하는 군상들의 음모와 배신이 펼쳐진다.

반야는 영조가 즉위하던 해에 무녀 유음해에게서 태어났다. 영조의 큰아들 효장 세자의 병증이 심해 무녀들이 푸닥거리를 위해 입궐하기로 한 아침, 다섯 살 반야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세자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

“무녀 반야의 예지력은 상층 신분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 쓰입니다. 그러다 반야가 만나게 된 세상이 '사신계(四神界)'라는 현실에 살면서도 현실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계죠.”

작가는 사신계는 “하늘 아래 모든 목숨의 값이 같은 세계요, 그와 같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움직이는 조직”이라며 “사람들의 고통이 모여 짙은 그늘이고 꿈으로 잦은 비단”이라고 덧붙였다.

소설은 조선 중기 영·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부친인 영조와 끊임없이 갈등하며 광인처럼 살아가는 사도세

자,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불화를 지켜보며 극도의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세손 이산을 중심으로 한 축이 형성된다.

소설의 또 다른 축은 주인공 반야와 평등사상을 강령으로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사신계,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권력이 목적인 만단사(萬旦嗣)가 형성한다.

작가는 “사신계를 만남으로 반야는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이유를 깨닫게 된다”며 “사람들의 맺힘을 풀고 고통을 덜어주는 진정한 의미의 무녀로 다시 태어난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작품에는 설화와 신화를 토대로 빛은 사신계도 등장한다. 오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유녀(儺女)'와 '호녀(虎女)'에서 비롯된 고조선 개천 신화를 작가적 상상력을 가미해 펼쳐낸다. 작가는 신화적 요소를 가미한 것에 대해 “반야가 무녀인 까닭은 우리 신화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대하소설을 완성하기 위해 적잖은 공력이 들었겠다”는 기자의 말에 작가는 “문단 활동을 포함해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신경 쓸 일을 만들지 않고 창작하는 데 몰입했다”고 밝혔다.

고흥 출신의 작가는 지난 95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소설이 당선돼 등단했다. 이후 2000년 여성동아에 장편 '아스피린 두 알'이 당선되었고 장편 '불꽃섬', '도둑의 누이'와 소설집 '떨썩질' 등을 발간했다.

작가는 등단하기 전 잠시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다. 결혼하고 광주로 내려와 애를 낳고 전업작가, 전업주부로 살았다.

송 작가는 “결국 소설쓰기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지향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면서 “수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글쓰기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아마도 작가의 글쓰기는 우리의 삶을 인간다움으로 성취해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번 작품 '반야'는 그런 꿈과 현실이 어우러진 '해원과 비원의 굿판'일 수도 있겠다.

“사적적 의미의 반야(般若)는 깨달음에 의해 얻은 지혜를 뜻하지요. 금강석처럼 견고하며 날카롭고 빛나는 지혜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제거해 온갖 고통과 어둠을 쓸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불경 '반야심경'에서 비롯됐지만, 궁극적으로 반야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대명사이지요.”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영국의 리버풀(Liverpool)은 팔색조 같은 도시다.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에겐 명문 구단 리버풀 FC의 심장이고 음악을 사랑하는 마니아들에겐 비틀즈의 고향인 것처럼. 하지만 예술을 즐기는 애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리버풀은 공공조형물 '수퍼랩 바나나'(Superlambanana·초대형 바나나 양의 메가, 바로 문화도시다. 그도 그럴 것이 리버풀을 돌아다니다 보면 크고 작은 노란색의 '수퍼랩 바나나'를 만날 수 있다. 지난 달 초 취재차 리버풀을 방문한 필자도 정체불명의 노랑조형물에 시선을 빼앗겼다. 몸은 바나나 모양

Chienzo)의 '수퍼랩바나나'를 선정했다. 과거 리버풀의 허브인 앨버트 독(Albert Dock)을 통해 거래되던 바나나와 양을 형상화한 작품은 리버풀의 역사와 유전공학의 위업을 함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퍼랩바나나'는 1년간 거리를 수놓으며 전 세계에 리버풀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각인됐다. 또한, 리버풀 시와 지역예술가들은 유럽 문화수도가 끝난 이후에도 '수퍼랩 바나나'를 활용한 관광투어와 아트 상품을 개발, 도시의 브랜드로 키워냈다. 리버풀을 떠나던 날, 기차역 입

“아이 러브 폴리”

인데 머리는 양의 형상을 한 게, 조금 기괴했다. 하지만, 1박2일 동안 길거리에서 자주 마주친 덕분인지 친근하게 느껴졌다. 실제로 조형물이 있는 주변엔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관광객들은 인증 샷을 찍느라 바빴고 아이들은 손으로 만져보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작품은 리버풀 시립미술관 야외광장에 품 잡고 서있었다. '맨디 만다라'(Mandy Mandala)라는 근사한 이름이 붙은 조형물은 5.2m 높이에 무게도 자그마치 8t이나 됐다. 그리고 미술관 구경을 마친 관람객들의 손엔 '수퍼랩바나나'가 들려있었다. 아마 미술관 아트숍에서 판매하는 미니어처 기념품을 구입한 듯했다.

'수퍼랩바나나'가 리버풀에 첫선을 보인 건 지난 2008년 유럽문화수도 프로젝트였다.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된 리버풀은 1년간 문화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프로그램을 전개하면서 상징 조형물 공모를 통해 일본작가 타로 치엔조(Taro

구의 '수퍼랩바나나'를 본 순간 '광주폴리'가 문득 떠올랐다. 지난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로 탄생된 이후 1~3차에 걸쳐 30개가 광주 도시에 들어섰지만, 관광객들은 인증 샷을 찍느라 바빴고 아이들은 손으로 만져보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런 점에서 최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주최한 '광주폴리, 문화도시 시 서론' 개의 이정표: 다시 & 미리 보기' 심포지엄은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관심을 넘어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기초발제를 맡은 이용우 감독(상하이 예술프로젝트의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10년 후에도 폴리가 광주의 명물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폴리의 무용론이 등장할지 모른다.” 이제 광주시와 비엔날레 재단이 답할 차례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내일 영광서 연극 '춘몽, 꿈이었네' 상연

법성 출신 박솔기샘 다역 연기 눈길

연극 '춘몽, 꿈이었네' 가 오는 7일 오후 3시, 7시에 영광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영광군이 주최하고 문화교육사업소, 영광예술의전당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에는 정한용, 최조우, 윤희철, 지미리, 이성경, 강인영, 김성호, 박솔기샘이 출연한다.

이번 연극은 한국적 서정성의 아름다운 해학과 정을 기조로 텍스트화했다. 꿈이라는 기초 속에 각기 다른 사건들이 시트콤의 에피소드처럼 빠른 템포로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

평범하지만 흔하지 않은 가장, 남편이자 아빠를, 진정성을 담아 표현할 탤런트 정한용의 연기는 작품의 관람 포인트다. 국민아빠로 변신하는 그를 보는 재미와 약동 같은 현실에서 깨어나는 마지막도 반전의 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연극에는 영광군 법성 출신의 박솔기샘씨가 리포터 최, 미쓰리, 송 알바 등 1인 다역으로 출연해 눈길을 끈다. 관람료 3000원. 문의 061-350-5400.

/영광=김민석기자 mskim@

문화전당 청년문화기획자 8일까지 모집

22~24일 9개 공간 프로그램 기획·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Dream Night in ACC'에 참여할 청년문화기획자를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

작년에 이어 2회째 열리는 'Dream Night in ACC'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ACC의 대표적인 겨울 시즌 행사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문화기획자의 참신하고 실험적인 기획을 공모로 선정,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는 청년문화기획자들은 ACC 실내의 9개 공간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ACC 별자리'라는 주제로 각 공간과 콘텐츠의 특성에 맞게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공모 참여는 광주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문화기획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심사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이루어지며, 프로그램에 대한 창의성, ACC 시설과의 조화(야외) 및 연말 프로그램과의 연계 기준 등으로 평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양석승 박장대쇼' 내일 광주 대인동 김빛과

오는 7일 오후 1시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 자리한 복합문화 공간 '김빛과'(지하 1층)에서 한국감성총천 & 웃음치로 연구소 양석승(사진) 소장의 '제2회 시와 노래와 유머가 넘치는 양석승 박장대쇼'가 펼쳐진다.



박장대쇼는 고전유머, 현대유머, 글로벌유머, 가요 등으로 구성됐다. 양 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시와 노래와 유머가 넘치는 양석승 휴먼콘서트'를 25회 개최했다. 2011년 올해의 신 한국인 대상, 2011년 자랑스러운 성공인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10-3359-0070.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적용된 프리미엄 외벽방수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반이식카펫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을 가는데!!

특허 제10-0952035호
특허 제10-1097764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안벽 단열방수 | 냉난방비 절감 |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 6년 무상 A/S

총로문화재단 옥상사공 | 시공사례 | 상명대학교/광명보건전문대학/대전대학교/매곡시보전문대학/성서대학교/강화군청/인제군청/부천소방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경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